

경기 불황에 부자들 “부동산 보다 금·채권”

실물 경기·부동산 경기 악화 전망...자산 포트폴리오 유지

부동산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 늘리겠다...매도 의향 33.6%

올해 경기 불황이 예상되면서 부동산보다는 예금과 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부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부자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 884명과 금융자산 1억원~10억원 미만 대중부유층 545명, 일반대중 581명 등 301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프라이빗뱅크(PB) 인터뷰로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을 비롯해 40대 이하 부자인 영리치의 자산관리, 가상자산(코인) 투자 행태에 대해 심층 분석한 내용이 담

겼다. 부자들은 올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모두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74.8%는 실물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봤고, 부동산 경기 부

정 전망도 63.9%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향후 1년의 자산구성 계획에 대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비중이 6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조정 의향을 보인 부자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15.2%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8.4%에 불과했다.

올해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은 예금(40.4%)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 속 유동자산을 확보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많은 셈이다.

경기 불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금(32%)에 투자하겠다는 수요도 많았다. 채권에 대한 투자 의향도 32%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ETF(상장지수펀드) 29.8%, 주식 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겠다는 부자가 좀 더 많은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20.4%로 조사 대상에 오른 12개의 주요 자산 중 후순위에 속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보유한 부자 중 20% 이상 고수익을 낸 비중은 12%로 미미유자(6%)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자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기존 75대 25에서 60대 40으로 해외 주식을 좀 더 보유할 의향을 보였다. 투자 분야로는 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를 고려했다.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지난 2023년 46%에서 지난해 49%로 상승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예금과 주식이 금융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2023년 8%에서 지난해 13%로 큰 폭 증가했다. 금융투자 수익률도 10% 이상 수익을 낸 비중이 같은 기간 8%에서 12%로 늘었다.

올해 부동산 매입 의향은 지난해 50%에서 44.3%로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매도 의향은 31.0%에서 33.6%로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여전히 안정적 수익처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금융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둔 부자보다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거둔 부자가 좀 더 많았다”며 “투자의 1등 공신인 부동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인식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중부유층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가상자산 보유율은 2022년 12%에서 지난해 18%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경험자(14%)까지 더하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2025년 광주형 SW·AI
교구재 개발 참여사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광주형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구재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광주 지역 에듀테크 기업이며 3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작자원을 통해 신규 제작된 교구재는 주월동의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 설치돼 학생들에게 공개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식약청, APEC 고위관리회의
식음료 시설 종사자 특별위생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5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를 대비해 1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서귀포시 소재)에서 식음료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3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 제공되는 식음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식음료시설 조리종사자(200여명), 현장점검반(관계공무원, 50여명) 등으로, ▲식재료 검수·보관부터 조리·배식까지의 전단계 위생관리 ▲조리시설·기구, 기계관리 방법 ▲조리장·종사자 위생관리 수칙 ▲보존식 보관 ▲식음료 검식관 활동 등에 대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식약청은 식음료시설 사전 위생점검, 행사 기간 중 식재료 검수·검식, 식중독 신속검사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문화 누리고 주거비도 절감”...LH·동구·신협 맞손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사업 시즌2 업무협약 체결



LH광주전남분부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 광주동부 신협과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즌2 사업 추진 협약을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동구청과 LH는 숲속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LH와 동부신협은 주거복지포인트 재원을 매칭해 마련

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작은도서관에서 토탈공예, 시와 성경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활력을 찾고 주거비도 절감하게 됐다는 지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이번 시즌2 사업의 최초 협약을 광주 동구청과 체결했다.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사업은 입주민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매월 적립된 포인트를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LH가 공동체 활성화와 임대주택 내 고령·독거세대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올해 광주동구 등 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

광주김치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18~30일 최대 30% 특별할인...무료배송 혜택도

원재료 100% 국산...대통령상 수상자·명인 김치 등 다양



광주시는 광주김치 온라인 판매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광주김치물’을 새로 개설하고, 특별할인행사를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시는 스마트스토어가 별도의 광고 없이 네이버 검색과 소프맵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고, 클릭 후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인 구매전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광주김치물’을 신규 개설

했다. ‘광주김치물 스마트스토어’는 지역 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와 대통령상 수상자 등 김치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100%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소비자 신뢰가 높다.

이번 할인행사는 광주김치물과 입점업체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배추김치, 열무김치, 석박지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전품목 10~30% 할인 ▲전국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김치물’을 입력하거나 정보누리(QR코드)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기존 운영 중인 광주김치물 누리집(www.k-kimchi.kr)에서도 할인행사를 동시 진행하지만, 판매정책에 따라 일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

오영주 장관 “K벤처·스타트업, 美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총 2억 달러 규모 글로벌펀드 3개 결성

UKF·한국벤처투자 MOU...중기부, 지원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 간 한국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 협력 양해각서 체결. /광주전남총기협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자치를 적극 지원하고, 한인창업자연합(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간)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 ‘UKF-한국벤처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오 장관, 임정택 총영사,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탈, 한국 유관기관, 행사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성된 3개 글로벌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한화 약 2854억원)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세계 15개 벤처캐피탈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원을 출자했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월 기준 총 73개 펀드, 약 12조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UKF와 한국벤처투자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글로벌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형안 기자

한-베트남 과학·교육·중소벤처기업 교류

광주전남벤처협·광주테크노파크 “글로벌 시장 개척”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테크노파크는 15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한-베트남 과학·교육·중소벤처기업 교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베트남 과학·교육 유관기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및 협회 회원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베트남국립농업대학(VNUA) 국제교류처 응우옌땃당 처장, 호 응옥닌 부학장과 심동호 베트남-한국국제협력센터장 등 베트남과학·교육 분야 대표적인 3개 기관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을 선제적으로 베트남과 기술 및 사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한-베트남 과학·

교육 및 중소벤처기업 교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학술, 기술, 중소벤처기업 교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학생 연수 및 학위 취득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선도 ▲한국·베트남 조인트벤처 창업 및 K-기업가 정신 확산 등이다.

또 이날 가칭 ‘한-베트남과학교육중소벤처기업교류협의회(위원장 윤봉근)’를 발족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교류회를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와 광주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연구개발, 기술협력, 조인트벤처 창업 등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자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전남농협 성과 풍성'

전남지역 농협 사무소와 직원들이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 손해보험 전남총국은 14~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남 관내 농축협 사무소 2곳과 직원 31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고 밝혔다.

서영암농협은 사무소부문에 5년 연속 연도 대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 현액의 영예를 안았으며 개인 부문에서도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연도대상 사무소 부문 대상은 서영암농협, 강진농협, 해남진도축산농협, 고흥 흥양농협, 나주 마한농협이 수상했다.

장흥 안양농협, 함평축산농협, 강진 도암농협, 복신안농협은 우수상, 영광 굴비굴농협, 해남 계곡농협은 해아림그룹 우수상을, 광양농협은 해아림그룹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개인부문 금상은-김재현 과장(광양농협), 강수희 계장(서영암농협), 오승자 상무(장흥 안양농협), 조미리 과장대리(장흥 천관농협), 윤유철 차장(해남진도축산농협), 김육 상무(강진 도암농협) 등이 영예를 안았다.